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 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2
III. 예비비 지출 개요	3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V. 대체토론 요지	17
VI. 심사결과	17
VII. 소수의견의 요지	17
VIII. 찬반토론의 요지	17
IX. 결산시정요구사항	18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 소관 부처 회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o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 29.

2. 회부일자 : 2026. 7. 1.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6. 9. 18.)

- 상정, 의결(원안의결)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9. 22.)

-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의결)

Ⅲ. 예비비 지출 개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인재활용확산지원(R&D) 등 예비비 129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86억 6,600만원(기존 예산액 631억 9,200만원 제외)을 집행하였고, 25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89,830	-	12,922	-	-	-	102,752	96,953	2,507	3,293
인재활용확산지원 (R&D)	54,449	-	5,120	-	-	-	59,569	59,569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	-	3,625	-	-	-	3,625	3,110	-	515
우편업무정보화 (정보화)	35,381	-	4,177	-	-	-	39,558	34,274	2,507	2,778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강대훈)

□ (총괄) ‘과학기술분야 R&D’(p.49)

동 사업은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전략기술 육성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조 9,650억 9,100만원 중 4조 9,195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형·전략 R&D 과제와 시설·장비·인프라 구축형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이 확보한 해외 평가위원 후보 7,458명 중 2025년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73명에 그치는 등 활용실적이 미진하므로, 해외 평가위원의 활용 대상과 운영기준을 구체화하고 참여 제약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종료과제 중 최종보고서가 제출기한을 초과한 과제가 일부 있고, 일부 과제는 최종평가도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최종보고서 제출과 최종평가에 대한 단계별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종료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총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원’(p.145)

동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주요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1,284억 500만원 중 2조 983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1회 또는 1인당 포상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포상대상을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액 포상의 산정기준과 상한, 포상 종류·수혜범위의 적정성, 중복보상 방지 등에 관한 공통적인 관리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출연연구기관은 국외 직무파견자에게 국외근무 관련 수당 외에 월정직책급·직책판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각 수당의 지급근거와 필요성 및 재외근무수당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p.169)

동 사업은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17억원 전액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2024~2025년 신규 선정된 23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단계평가 등을 거쳐 종료되었는데, 사업의 진도 점검 결과와 단계평가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도점검 결과가 연구방향의 보완·전환과 단계평가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종료

과제의 연구성과와 중단 원인을 추적·공유하여 후속 연구기획과 과제 선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p.175)

동 사업은 고신뢰도 양자컴퓨팅 핵심 요소기술과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98억원 중 66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31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임에도 과제 협약이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체결되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연구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가 연구장비 도입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집행 연구비의 집행계획과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p.190)

동 사업은 기초연구 환경과 기초과학·비즈니스의 융합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917억 3,800만원 중 281억 3100만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였고, 607억 3,500만원은 직접 집행하고 19억 5,500만원을 이월, 9억 1,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사업 중 교부액 131억 8,500만원 전액이 이월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관리와 예산집행 관리를 연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p.257)

동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61억 6,900만원 전액이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의 실집행률이 16%에 그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센터 설계·건립과 장비 도입 등 주요 절차별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방사선융복합산업지원’(p.280)

동 사업은 방사선 기술고도화 및 제품인증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5억원 전액이 한국연구재단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사선산업 육성센터 사업 중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수행하는 방사선기술산업진흥센터 운영 사업은 2년 연속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술 변화에 따른 착수 연기를 반복하기보다 일정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목표 변경에 따른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p.287)

동 사업은 미래 원자력 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원자력기술의 개발·실증 및 성과 확산에 필요한 연구부지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590억 9,000만원 전액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민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취득한 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중요재산임 에도 ‘보조금통합포털’에 공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공시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보조재산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K-HERO 육성·지원(R&D)’(p.303)

동 사업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최우수연구소로 육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8억 8,200만원 전액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출연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일부 역량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기업연구소 생태계 전반의 연구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고 3특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 비중도 낮은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연구소에 대한 집중 지원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성과를 반영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 지원’(p.320)

동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기반시설 구축과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운영 지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술 사업화와 혁신기술 실증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06억 4,000만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시에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대전시의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조성 사업 교부액 53억 3,6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으며, 2026년 7월 대전시가 재정 혁신 방안에 해당 사업을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과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을 지속 협의하고, 대전시의 재정 여건과 장기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과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재정투자의 타당성과 기존 인프라와의 중복성 및 시설 활용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연구실안전환경구축(R&D)’(p.337)

동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등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08억 9,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현장검사 실시기관은 대상기관 총 4,890개소 중 약 13%인 621개소에 그치고 있는 반면, 연구실 사고는 2020년 222건에서 2025년 456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므로, 연구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검사 대상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조업 AI융합 기반조성’(p.374)

동 사업은 제조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AI융합 솔루션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40억원 전액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사업인 ‘제조업 현안 해결 AI오픈랩 구축·운영’ 사업으로 구축한 일부 AX랩에서 장소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장비 도입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 활용 가능한 장비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X랩 구축 이후 장비 설치 및 운영 준비가 지연되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p.391)

동 사업은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예산액 1조 6,194억 3,800만원 전액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GPU 임차 지원’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일부 지원사업은 지원 개시 시점 자체도 차년도로 넘어가는 등 회계연도 독립 원칙 및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단가 및 지원대상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역량강화교육’(p.419)

동 사업은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역량교육 추진을 지원하고 교육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86억 6,500만원 전액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에 신규 AI디지털배움터 32개소를 구축하고 AI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6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2025년 12월까지 신규 AI디지털배움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협의 지연 및 기자재 구입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집행이 부진하였고 결과적으로 AI디지털배움터 구축은 2026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국민의 AI·디지털 역량을 신속히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내 구축과 시범 운영을 완료하지 못하고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보통신진흥기금)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p.435)

동 사업은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당초 계획액 대비 50억원이 추가된 수정계획액 557억 5,200만원 전액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된 50억원 중 15억원을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의 교육비로 배정하여 100명의 교육생 선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선발 인원은 75명이고 최종 수료 인원도 44명에 불과하여 교육비 15억원 중 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교육사업의 수요 예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p.449)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1억원 전액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출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응용디바이스 사업의 과제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전액 교부하여 해당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연금 교부는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해연도 재개가 불가능한 과제에 대한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정보통신진흥기금)‘AI혁신펀드’(p.467)

동 사업은 AI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국가 AI 혁신을 뒷받침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1,000억원의 계획액과 일반회계에 편성된 500억원의 예산액을 더하여 총 1,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펀드는 선정된 운용사의 포기로 인해 2026년 8월 현재까지도 결성되지 않고 있고, 결성된 자펀드의 실제 투자 실적 역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결성된 자펀드가 차질 없이 결성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저조한 투자 실적 및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반회계) ‘위성주파수 관리기반 구축’(p.523)

동 사업은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를 위한 위성주파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액 10억원 전액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동 사업에서는 위성망 확보에 소요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서 국가기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이 위성망 이용 활성화라는 점,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 위성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약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연례적 세입 실적 저조 문제’(p.539)

2025년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조 3,784억원, 수납액 4조 9,13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격차가 4,653억원이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조 1,059억원, 수납액 8,668억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격차가 2,391억원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3년간 2개 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납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액의 확대 편성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실적과 괴리된 세출예산 과다 편성을 야기하였으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회계의 세입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우편사업특별회계) ‘국내우편운송’(p.559)

동 사업은 우편물을 각 주소지로 배달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접수국 우편물을 배달 관할구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현액 2,178억원 중 2,17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액 중 운송료 2,136억원이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급되었습니다.

동 사업 운송료는 운송실적에 운송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는데, 국내우편 운송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운송료는 꾸준히 증가하여 물량 추이와 운송료 규모가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물량 감소가 운송비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송노선 조정 및 적재효율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V. 대체토론 요지

생략

VI. 심사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원안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2건

VII.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VIII.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IX. 시정요구사항

1.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2건

(단위: 건)

부처명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			2

2. 시정요구사항(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사업의 예산 집행 절차 준수 및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 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비 배정·교부 및 수행기관 협약이 완료되기 전에 수행기관의 자체재원으로 총 3억 3,455만원을 선집행한 후 이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였는바, 예산의 확정 및 교부 후 집행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재정운용 절차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과학문화 확산,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영재교육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어 해외인재 유치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예비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비 배정 및 사업 협약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예비비로 추진한 해외인재유치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	주의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인재유치사업을 미국에서 총 8차례 개최하면서, 간담회 및 설명회 중심으로 진행함에 따라 해외인재의 실제 국내 유입·정착·채용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2026년 현재 설문조사 결과 동 사업으로 인한 채용 예정·확정 기관은 5개, 후속 연계(면접·공동연구 등)는 42건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사참여 해외인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